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원탁토론회

남원시는 지난 15일 시청 강당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자, 아동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올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과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아동친화도시 6개 주요 영역인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정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언을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해 아동이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산우회,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산우회(회장 이덕춘) 졸업생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17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최근 대학본부 총장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대 산우회는 1964년에 설립된 전북대인화회 동아리 동문회로 2014년부터 10년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덕춘 회장은 "비록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다"며 "산우회 선배들의 따뜻한 정이 후배들에게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기안전공사, 오폭 피해지역 특별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8일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서 지난 13~14일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일 정부가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을 결정한 때 따른 조치다. 일반적으로 부서진 건물의 경우에는 갑전이나 화재 등 인근 주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100여 개 시설을 점검하고 이중 17개소의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황송의 안전이사를 주축으로 하는 점검팀을 급파해, 파손 건물의 전기설비 점검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피해지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빠르게 확보해,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시,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다의 50% 금액(140천원~270천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는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남원시에 체류 등록하고 거주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로 관내 어린이집 재원 0~5세 외국인 아동이며, 선정된 아동은 3월부터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남원시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중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은 1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차별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결핵없는 건강한 남원 만들기’

남원시보건소, 24일 결핵 예방의 날 맞아 31일까지 집중 홍보

남원시보건소는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기념하여 17일부터 31일까지 '결핵없는 건강한 남원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결핵감진 활성화를 위해 대한결핵협회와 협업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주간보호센터·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해 찾아 가는 결핵 검진 및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4,000여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앱 '위

크론의 『건강 한 걸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결핵 예방 퀴즈 이벤트 및 검진 캠페인을 추진하고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연중 심상생생건강교실 체조강의를 통해 홍보하는 등 환자 발생 최소화로 감염병 없는 남원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독립기념관과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지난 14일,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과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태권도 공연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갖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2025년 태권도 핵심 콘텐츠(킬러 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 추진과 신규 사업 및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은 '2025년 태권도 핵심 콘텐츠(킬러 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청와대, 인천국제공항, 무주군 일원에서 태권도 상설공연을 추진해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태권도 우수성과 문화로서의 가치를 전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과 9월 4일 태권도의 날, 9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태권도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은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무예이며, 국민들의 민족정신과 열이 담겨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독립운동 핵심가치를 선도하고 역사 의식 함양과 확산에 기여하는 등 독립기념관 주요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날 협약을 기념해 "세계와 함께 한 독립정신, 세계를 선도하는 태권도"라는 글귀를 송판에 남겼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독립의 감동을 국민과 우리는 독립기념관에서 태권도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칠보고, 전국씨름대회 단체전 3위 등 입상 쾌거

칠보고등학교 씨름부가 지난 12일 문경에서 열린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고등부 단체전 3위, 개인전 역사급(100kg이하)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전 역사급에 출전한 이현우 선수(3년)가 결승에서 대구능인고의 전병건 선수에 1:2로 패하며 2위를 했다.

칠보고 씨름부는 2023년 3월 창단, 칠보초-칠보중-칠보고로 이어지는 씨름 명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단체전 3위를 이끌었던 주장 정민수 선수는 "3학년 첫 대회에서 4강 진출이라는 기쁨도 잠시, 긴장을 많이 해서 발목에 부상을 입어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체력관리에 더욱 신경써 팀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은성 기자



임실군, 제18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임실군이 군청 농업교육장에서 제18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임실군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입학식에는 학장인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교육생 25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특강 및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18년 차를 맞은 농업인대학은 복숭아 기초과정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매주 1회 진행되며, 체계적인 이론 및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 도봉동, 봄철 산불대비 재난 대응체계 점검

남원시 도봉동(동장 소선자)은 음면동 6대 핵심 과제 중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 직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대비 직원 교육을 및 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산불 장비인 등짐펌프 사용법 실습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실제 장비를 다루보며 초기 진화 및 비상 상황 대응 능력배양과 이를 통해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천지예수교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식 성료

지난 1984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의 행보와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해 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막성전)이 지난 14일 창립 41주년 기념예배를 청주교회 현장에서 진행했다.

이민희 총회장은 성도들을 향해 성경에 입각한 신앙과 성정을 거둔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이 말씀과 하나 되어야 한다"며 "계시록대로 이뤄진 실체까지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내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희 기자

구천동농협, 2024년 종합업적평가·상호금융대상 우수상 수상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3월 17일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2024년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종합업적평가 우수상 및 상호금융대상 우수상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천동농협은 수익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내실 있는 경영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신용 및 경제사업 전 분야 유기적으로 연계·시너지 창출을 극대화 하였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가 매년 전국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 그룹으로 분류해 경제·신용·교육지원사업 등 총 50개의 평가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모든 사업 영역에서 매우 탁월한 성과를 거둔 농·축협에 대한 시상으로 영예로운 상이다.

상호금융대상은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을 평가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농협 완주군지부, 대둔산도립공원 플로깅 행사

농협은행 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는 지난 15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둔산도립공원을 찾아 환경정화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우프(Plocka upp)와 영어 걷기를 뜻하는 (Walking)의 합성어로서, 걷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은행 완주군지부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일원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일러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김대호 지부장은 "재 봄을 맞아 대둔산도립공원의 관광 활성화를 기원하며, 농협은행 완주군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군산부설초, 교육과정 설명회 성료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14일 2025학년도 군산부설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학부모 눈높이에서 이뤄진 학교·학급교육과정 안내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와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였다.

김신철 교장은 "지난 2024학년도에도 열정적으로 협력해 준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도 행복하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